

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로탐색 웨비나



# 영국의 박사과정 (사회과학; 사회정책학)

이건, DPhil Candidate in Social Poli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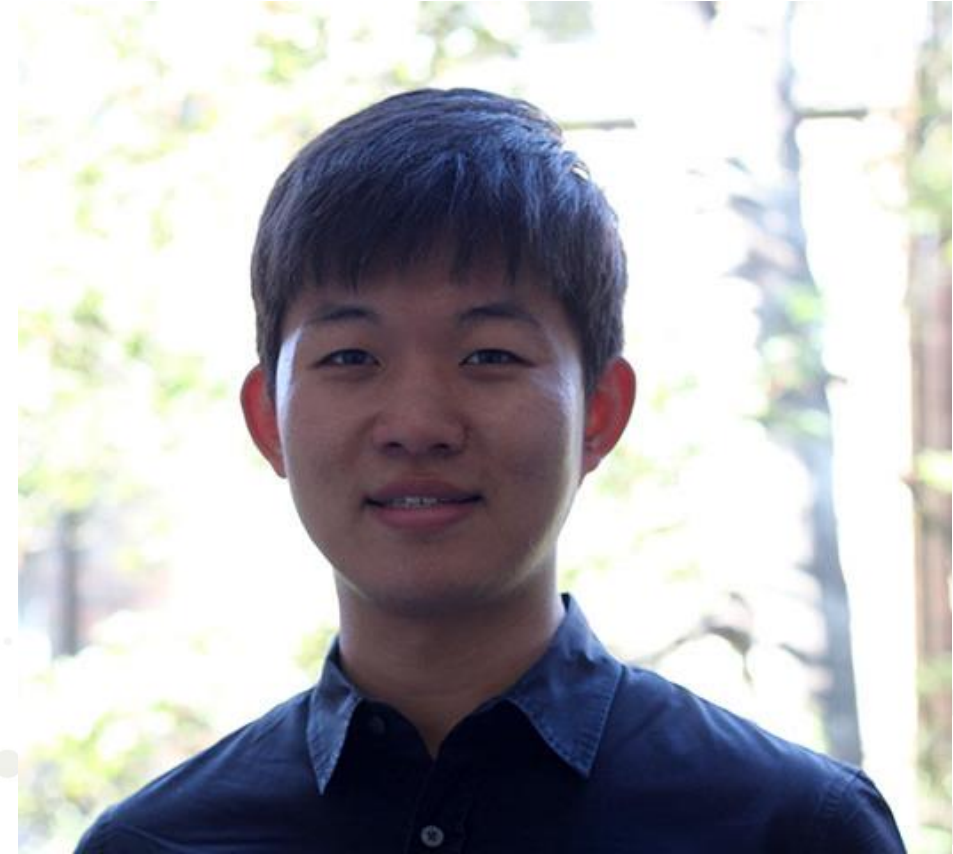
Department of Social Policy & Intervention

Wolfson College, University of Oxford

# 소개



- ‘사회정책학’ 박사과정 2년차 (2020-)
- 2012-18: 서울대학교 학사 (사회복지학, 경제학 전공)
- 2018-19: 옥스퍼드대학 비교사회정책 석사(MSc in Comparative Social Policy)
- 2019-20: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화조교 (박사과정 준비!)
- 인구고령화: 고령빈곤, 저출산...
- 연금제도, 노동시장정책, 가족정책
- 양적연구: 사회통계, 계량경제, 국제비교



# 목차



- 영국의 박사생활 소개
- 진학동기와 진로선택의 기준 (for 학부생)
- 유학준비 실전 (for 석사, 학부 고학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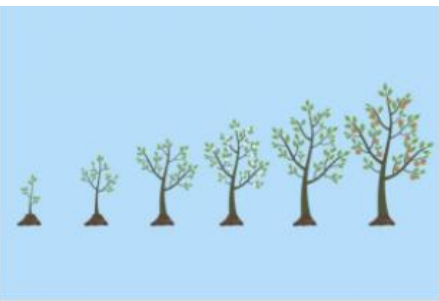
# University of Oxford

- 1096년 개교 (영어권 최고령)
- 총 45개의 Colleges & Private Halls
- 약 7000여 명의 교수진/연구자, 2만 5천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 중심 대학
- 영국 Oxford 시 위치 (런던 서방 1.5시간)
- 인구 15만 내외의 작은 대학도시
- 특이사항: Oxbridge, Ashmolean Museum, Oxford University Press 등

# 영국의 박사생활



- No formal 'coursework' – 연구중심 과정 (석사학위 전제)
- 1년 차: 박사논문 계획서 작성 + 추가적 수업 수강 → 1년차 평가
- 2년 차 ~: 박사논문 작성 (학기/방학 구분 큰 의미 x)
- 평균 4.5년 소요 (case by case)
- Teaching (tutorial), 연구 조교 (RA: 데이터 분석, 선행연구 검토, 논문 작성)
- 세미나 참석, Conference 발표, Summer schools...
- 학교/학과별 특수성에 유의 (사회과학 분야 대체로 비슷)



### Family Policy, Gender and Demographic Change

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



### Education, Social Policies and Inequalities

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



###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Reform

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



### Poverty, Welfare and Social Exclusion

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



### Inequality and Prosperity

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/ Oxford Martin School research grou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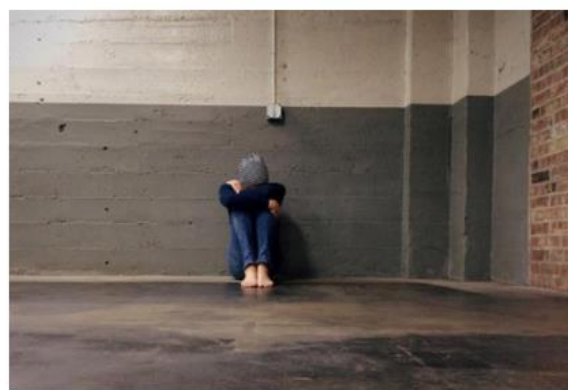
#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



Child and family mental health and well-being



Public health



Violence preven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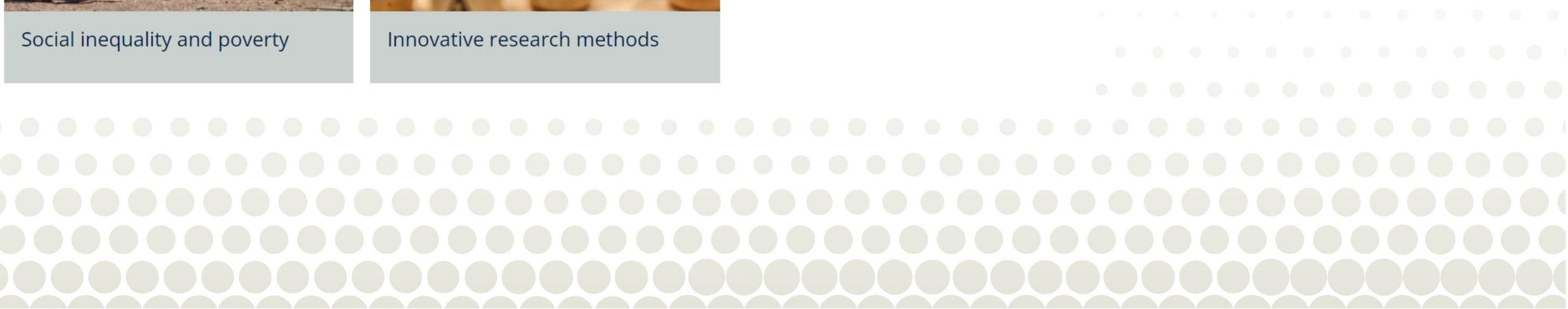


Social inequality and poverty



Innovative research methods

# Centre for Evidence-based Intervention & Policy Evaluation



# 진로선택의 동기



- 사회복지학과 입학 & 경제학 복수전공 선택
- 2-3학년 진로고민: 행시?? 로스쿨?? 대학원(유학) 가보면 좋을까?
- 교환학생 (3학년 2학기~4학년 1학기): 영국 UCL – 넓은 세계를 경험
- 유학 결심: 영국 석사? 교수님들의 조언
- 박사과정: 미국 vs 영국



# 대학원/연구자로의 진로선택



## 장점

- 상대적 자율성 (독립된 연구자)
- 나의 분야를 개척한다는 성취감
- 지적 갈증 충족 (i.e. 과학적 사고, 큰 그림을 보는 시야...)

## 단점

- 20대 후반-30대 중후반의 기회비용
- High risk (& low return?)
- 불안정, 방황, 좌절...

# 누가 박사과정에 적합한가? (=이상형)



- 박사: 독립된 '연구자'가 되는 길 - 학부전공의 심화과정(x)
- 전공 관련 사회문제에 관한 진지한 관심
- 호기심이 많은 사람 = 질문하는 사람  $\neq$  시험 잘 보는 사람
- 남과의 비교를 덜 하는 자세
- 돌부처 멘탈 (일희일비 x)

# 학부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

- 학점관리: 고고익선, but 어떤 수업을 들었냐가 더 중요
- 복수전공 적극 권장 (인접 사회과학 중심)
  - 정치학: 비교정치, 서구정치, 정치경제, 정치철학
  - 경제학: 노동경제, 재정학, 공공경제, 경제통계, 계량경제
  - 사회학: 인구학, 사회계층, 경제사회학, 노동사회학, 정치사회학
  - 심리학: 사회심리, 발달심리, 이상심리
  - 그 외: 정치경제철학(연합전공), 인류학, (일반) 통계학, 선형대수학 등
- 말하기와 글쓰기: 학문의 기초체력
- 독서: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읽지않는 책들...

- 거대한 전환 (Karl Polanyi)
- 시민권과 복지국가 (T.H. Marshall)
- 자살론 (Emile Durkheim)
  
-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(Gosta Esping-Andersen)
- 자유로서의 발전 (Amartya Sen)
-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(Daron Acemoglu)
- 21세기 자본 (Thomas Piketty)

# 유학을 가면 무엇이 좋은가?



- 자기만족 (세계무대, 학문의 성지)
- 연구환경 및 자원 (도서관, 세미나, 프로젝트, big scholars...)
- 체계적/혁신적 프로그램 (특히 미국의 top schools)
- 자유로운/비판적인 토론문화
- 다양성: '다른 사회'와 다른 생각들 (ex. 인종문제, 동성혼, 동거, 채식)
- 현실적인 이점: 노동시장의 세계화, 해외 대학 네트워크,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가능성 등

# 무엇이 안 좋은가?



- 외로움, 현지 적응 문제
- 영어 문제: 생활 및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
- 연애/결혼 및 가족 문제
- 그 외 생활환경 (지역/개인성향에 따라 장점일수도)
- 금전적 문제: 영국의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funding 부족, 미국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(대륙 유럽은 양호한 편)
- 영국/유럽: 미국과 비교해 체계적인 커리큘럼 부족 ('도제식 교육')

# 영국으로 유학 올 사람은?



- (한국에서 석사 후) 연구 관심사, 주제가 명확한 사람
  - 영국에서 석사를 할 수 있다면 좋음 (또는 영어권 경험)
  - 미국에서 잘 연구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관심 (ex. 복지국가, 국제비교)
  - 기본적인 training에 자신이 있는 사람 (특히 방법론)
  - Funding 문제 해결
- 
- 그게 아니면 가급적 미국으로...

# 유학준비 (정량: Oxford 기준)



- 학부 GPA: 일반적으로 고고익선,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음
  - Oxford의 경우 최소 3.7/4.0 이상 요구
  - 일반적으로 3.8/4.0 이상이면 영미 어디든 top school에도 충분
  - 너무 낮지만 않으면 수강 과목 및 다른 질적 평가가 훨씬 중요
- 영어 성적: IELTS 종합 7.5 이상, 전 영역 7.0 이상
  - TOEFL: 110 이상 (영역별 최소 점수 존재, speaking 요구점수 높음)
- GRE: 영국/유럽 필요 없음, 미국도 중요성 점차 감소
- CV: 학력; 학회/세미나 발표경험; 논문작성 경험; RA 및 연구소 인턴 등 연구경험; 장학금 및 수상실적
  - 개별 실적 및 스펙보다 SOP와 부합하는 Story 및 연구 동기가 훨씬 중요
- 지원하는 학기 9월까지 정리해 놓을 것



# 질적 평가 (훨씬 중요!)



- Statement of Purpose (Personal Statement) – 2-3장 내외
  - 지원자의 노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강력한 요소
  - 지도교수 및 지원 학교와의 fit을 판별하는 핵심 (기계가 아닌 사람이 선발)
  -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학생인가 (X) → 박사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
  - 관심 주제; 관심을 갖게 된 계기; 핵심 질문 (Puzzle); 어떠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인가; 왜 해당 학교 프로그램이 최선인가; 어떤 교수와 일하고 싶은가
  - Ex) 뜨거운 가슴, 이타심 (X) → 빈곤가정에 방문했다가 000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
- Research Proposal: 영국 한정 – 구체적 연구질문과 연구 계획 (5-10장)
  - 지원자의 학문적 내공을 평가하는 장치 –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?
  - Intro(연구주제); Theoretical framework; Data & Methods; Contribution of Study; References (20+)

# 그 외 (가장 중요!)



- 지원 학교 교수와의 fit: 지원 전 사전 Contact (10월 이전 권장)
  - 영국(유럽)의 경우 사실상 필수, 미국도 적극 권장
  - 교수에게 연구주제/관심분야 및 CV를 보내 적극적으로 자기 PR 해볼 것
  - 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지? 내년에 학생 뽑을 생각 있으신지?
- 추천서: often a game changer
  - “연구자로서 잠재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추천서를 가장 신뢰”
  - 나를 가장 잘 알고, 나에게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
  - 최소 3인의 교수님 - 미리미리 찾아 뵙고 요청드릴 것(10월 이전)
  - 유학생들에게는 ‘기울어진 운동장’, 그러나 행운이 찾아올 수도...

# 최종 관문



- 인터뷰: shortlisted candidate이 되면 인터뷰 요청이 올 수 있음
  - 학교by학교, 과by과: 4곳 중 2곳만 인터뷰
  - 30분-1시간 30분, 1대1 - N대1
  - 박사진학 동기 및 연구 계획에 대한 인터뷰,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
- 장학금: 미국의 경우 웬만하면 해결, 영국의 경우 쉽지 않음
  - 학교 제공 장학금: 운 + 금액 부족
  - 국비유학장학금, 한국고등교육재단, 관정 장학재단, 일주학술문화재단 등
  - 기관마다 규정이 복잡하니 1월부터 미리미리 확인할 것



# 감사합니다!

Email: [kun.lee@wolfson.ox.ac.uk](mailto:kun.lee@wolfson.ox.ac.uk); [shakgun@snu.ac.kr](mailto:shakgun@snu.ac.kr)